



월간

외식경영

특속리뷰 불고기매거진

인물초대석
(주)대명종합식품 윤환식 대표

프랑스프랑스
약산, 식당으로 걸어 들어오다

트렌드리더
일본요리 전문점 無限挑戰

프로모션
재방문을 높이는 효자손, 온라인 쿠폰

만나볼시다
(주)아이카는 외식공간 오진권 대표

차별의 레스토랑
(주)이카진 (정후정상 두명) (우유) (데이크) (로딩인 이분코)

특새매뉴
청량감이 일품인 사계절 빤미, 물회

신재로업세화방
(주)금포인푸드시스템

외식고급저장탕방
경희대학교 프랜차이즈 최고전문가과정

기획특집

성공음식점으로 가는 지름길 직원에게 맘껏 투자하라



August 2009 VOL 55

8



현장에서



Mr. 프랜차이즈 앨버트 콩

앨버트 콩, 프랜차이즈 전문 경기개발 전문가

대기업까지 다양한 중국지역언어를 구사하는 앨버트 콩은 싱가포르 최대 개인인 Tung Lok Group을 비롯한 400여 개의 프랜차이즈 회사들을 고객으로 보유한 AsiaWide Franchise Consultants의 대표이사이다.

앨버트 콩의 독창적인 생각으로 1999년 3월 20일 세계에서 유일하게 영어-중국어의 2가지 언어로 된 Asia Franchise & Business Opportunities(AFBO)가 창간되었고 Singapore Franchise Directory 2002년 9월 29일 개간권이 나왔다고도 발표했다. 이런 발행물들은 현재 프랜차이즈에 관한 전문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강력한 매체가 되었고 이러한 서비스는 아시아 지역에 있는 프랜차이즈 본사의 마케팅활동과 프랜차이즈 파트너들을 진척하는데 도움이 되고 있다.

1999년부터 1999년까지 싱가포르 에이러인 가내관리, 전세계의 서점들과 해외서점들의 정기구독으로, 또한 전세계 20여 개가 넘는 주요 프랜차이즈 전시회에서 예비창업투자자들의 주목을 받는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전 세계 예비투자자들에게 통합된 플랫폼 제공

월간인 Asia Pacific Franchise Directory는 아시아 대륙을 지역에서 일어

나고 있는 광대한 비즈니스 기회를 전 세계 프랜차이즈 커뮤니티, 그리고 예비창업투자자들이 될 수 있는 데로 보다 많이 나누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다. 또한, Asia Pacific Franchise Confederation(APFC)에 가입한 회원들과 자국 내에 예비창업투자자들을 프랜차이즈 파트너로 찾고 있는 회사들에게 통합된 플랫폼을 제공한다.

9000년 정도 발행되는 Asia Pacific Franchise Directory는 아시아 대륙 전 지역의 프랜차이즈와 이에 관련된 행사에서 배포되고 있다. Asia Pacific Franchise Directory는 다음과 같은 나라의 주요 프랜차이즈 행사에서 배포된다. 타이완, 일본, 한국, 우이, 미국, 유럽, 중국, 인도네시아, 태국, 호주, 뉴질랜드,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인도, 영국, 베트남 등. 4년에 한번씩 발행되어 전 세계 프랜차이즈 본사와 예비창업투자자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 아시아 대륙 전 지역의 명성 있는 프랜차이즈 본사들의 광고뿐만 아니라, 미국, 유럽, 일본, 한국,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태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중국, 필리핀, 호주 그리고 인도 등의 다양한 변호사들이 프랜차이즈에 관련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보고 있다. 활발히 활동하는 컨설턴트들이 합법적인 방법을 통해 기회를 더 많이 제공하고 있다.

발행 필요도 없이, 아시아 각 지역의 다양한 프랜차이즈협회에 가입된 프랜

17년의 프랜차이즈 컨설팅 경력을 가진 앨버트 콩(Albert Kong), 중국 프랜차이즈업계에서는 그를 Mr. 프랜차이즈라고 부른다. 2008년 중국 프랜차이즈 협회가 지난 10년 동안 프랜차이즈 발전에 공헌한 50명을 선정했는데, 48명은 중국본토 사람들이고 나머지는 외국인 2명 중의 하나는 바로 앨버트 콩이었다. 앨버트 콩은 세계프랜차이즈협회(International Franchise Association/IFA)의 the Certified Franchise Executive(CFE)를 수여 받은, 각소수아시아인 중의 한 명이다.

프랜차이즈의 확대 시장 중국, 인도, 베트남

Asia Pacific Franchise Directory 창간호는 2005년 6월에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열린 Asia Pacific Franchise Confederation(APFC) 회의에서 논의되었고, 아시아 대륙 전 지역에 있는 36개 프랜차이즈 협회와 회장들, APFC와 European Franchise Federation(EFF)에서 지지하는 18종의 출판권자를 장간호에 선정다. 아시아와 미국에서 해외 프랜차이즈를 확대하려는 60여 개 프랜차이즈 본사들이 지금까지 광고를 게재하고 있다. 게다가 13개국의 지방한 변호사들과 전 세계의 잘 알려진 컨설턴트들이 프랜차이즈에 대한 글을 게재하고 있다.

프랜차이즈 회사가 프랜차이즈 시스템을 해외로 확장하려고 할 때는, 발행 필요 없이 해당 시장에 어느 정도의 기회가 있고,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평가해야 한다. 인구가 10억 이상인 중국과 인도가 가장 관심을 끄는 목표가 될 것이다. 중국, 미국의 수많은 프랜차이즈가 몰려드는 시장이고, 인도는 벌써 2009년 프랜차이즈 열풍이 일어났다.

새 인쇄로 종이 있는 시장은 빠르게 2010년에 중국 대륙에 돌아오고, 지난 2년 동안 대역의 프랜차이즈 수가 밀려들기 시작했다. 다국가 2개의 베트남수 제인본사 사장들은 각각 프랜차이즈에 대한 책을 썼다. 인도네시아에서는 매년 세 번의 프랜차이즈 쇼가 열리고 프랜차이즈 회사가 상점으로 팔고 있다. 호주, 중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태국, 타이완, 그리고 베트남은 정부권과 해외에서 학교에서 주도적으로 프랜차이즈를 시찰할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예를 들어 중국의 경우에는 프랜차이즈를 대학(호남대학교 Hubei Normal University)의 공동으로 공동설립 주역이(Zhuai) 2006년 프랜차이즈 회의를 설립했고 2007년 4월에 첫 번째 출판권을 내놓았다.

2009년 104개의 미국 글로벌 프랜차이즈 회사들에게 설문조사한 결과, 99%가 아시아 시장으로 프랜차이즈를 확장하겠다고 했고 이 중 79%가 중국에 관심을 보였다.

이렇듯, 미국이 글로벌 프랜차이즈 회사들이 아직도 동남아시아에 소극적인 반면, 동남아시아에 회사들이 밀려들고 프랜차이즈 회사들은 각각의 지역에 시 프랜차이즈 회사들에 가입된 것처럼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2006년에 나온 Asia Pacific Franchise Directory를 보면 각 나라의 프랜차이즈협회에 가입된 회사들의 수를 알 수 있다. 태국은 37개, 중국은 200개, 그리고 호

주는 거의 500개의 회사가 프랜차이즈협회에 가입되어 있다. 베트남의 프랜차이즈협회와 인 시 지원되었고 방글라데시와 몽골도 거의 7년 전에 협회 회원들이 시작되었다.

우리의 한국 프랜차이즈들도 아시아 지역으로 확장을 해야 하는가? 대답은 간단하다. 지구 위에는 우리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먼저 움직이지 않으면 다른 나라에서 먼저 움직인다. 중국과 인도도 움직이지 않는 일이 어렵지 않다. 다른 나라에 프랜차이즈를 하려면 다음의 두 가지를 만족시켜야 한다.

- 1. 먼저, 투자-리서치 성공적인 프랜차이즈가 운영되어 있어 다른 나라에 투자할 수 있는, 인쇄된 문서를 할 수 있는 자원이 있어야 한다. 간단히 말하면, 캐시플로우가 좋아야 한다. 가장 좋은 예는 세계주권연방제(2008)이다.
- 2. 다른 하나는, 투자-리서치(2008)에서 많이 팔리고 나가지 않는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프랜차이즈 본사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중국으로 가는 일이 있다. 하지만, 대륙에서 2008년 10월은 현지(2008)의 위기를 가장 잘 알았다. 왜 하면 해야 하는가?

그리고 다른 나라에서 비즈니스를 하려면 우선 시장지식을 숙지해야 한다. '시장지식을 숙지하여' 군대에서 지휘도 같은 이야기다. 그래서 Asia Pacific Franchise Directory 2009년 판을 추천한다. Mr. 프랜차이즈, 앨버트 콩이 동남아 각 지역에 퍼져있는 프랜차이즈들의 기회를 모으고 아시아 비즈니스로 확장시킨, 바로 그 시장지식을 이용해야 한다. 문서는 아래 주소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http://www.asiawidefranchise.com/Directory2006_OrderForm.pdf

-다음은 (7개 중국 프랜차이즈 협회)가 자칭을 제안한다.-

정명호 (2008년 10월) 아시아경제 전문지
유니 프랜차이즈와 국제 프랜차이즈 컨설팅 자회사인 신화방 주사리의 설립자이다. 대외, 국가 프랜차이즈는 ASIAWIDE FRANCHISE CONSULTANTS 한국 지사이다. 지난 20년 동안 프랜차이즈, 자영업,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 성공을 경험해왔다. 현재, 자영업자를 그리고 인터넷-프랜차이즈를 운영하고, 프랜차이즈 투자와 관련된 프랜차이즈 협회, 창간회, 창간회 회장으로서 활동하고 있다. 프랜차이즈 시스템을 다각적으로 개발하는 것을 전문 분야로 삼고 있다.